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2016년 1월 8일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의 2016 어젠다의 제9차 안: 지자체 통합 완료 지속으로 뉴욕주를 살 만한 곳으로 만들기

지방 정부 효율성과 납세자 절약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으로 7000만 달러 경쟁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그의 2016 어젠다의 제9차 고유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즉, 뉴욕주에서 살고 일하는 것을 더욱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지방 정부를 보상하기 위한 지자체 통합 및 효율성 경쟁입니다.

이 경쟁은 카운티, 시, 타운 및 빌리지들이 혁신적인 통합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상당하고 영구적인 재산세 감축을 시현하도록 자극할 것입니다. 제안하여 최대의 재산세 영구 감축을 구현할 수 있는 통합 파트너십은 200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5년에 걸쳐 뉴욕주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엄청난 진보를 이룩하였는데, 금년에 우리는 그 모멘텀이 밀바닥에서부터 지속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경쟁은 지방 정부들이 주민들을 위해 비용을 줄이고 세금을 낮추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입니다 - 그러면 그들 커뮤니티에서 살고, 일하고 번영하기가 더욱 경제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튼튼하고 더욱 번영하는 뉴욕주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주 전역의 우리 지방 파트너들이 전진하도록 돕기를 열망합니다.”

이것은 서비스를 공유하고, 비용을 삭감하며 재산세를 낮추기 위해 협력하는 커뮤니티들에 제공되는 사상 최대의 직접 인센티브일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서 지방 정부 통합, 구조조정 및 효율성으로 인한 납세자 절약 시현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7000만 달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다년간 뉴욕주의 지방 재산세는 미국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뉴욕주의 경제 경쟁력과 그 주민의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재산세는 지탱할 수 없는 율인 인플레이션 율의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에 주지사는 재산세 상한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산세는 지난 3년 동안 약 2%의 평균 성장률로 억제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전 10년 동안 성장률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그 상한은 2014년에 지방 정부와 교육구들이 세금 상한을 준수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승인된 정부 효율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장려한 재산세 동결 프로그램으로 강화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다음 4개년에 걸쳐 뉴욕주 주택 소유자들을 위한 재산세 경감으로 추가 13억 달러를 점진적으로 목표하는 새로운 재산세 경감 크레딧이 창설되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